

한빛원전 폐로 부지 안전체험·연구시설 조성

영광군, 수명 5~6년 남은 1·2호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등 향후 발전 전략 구상도 내다

2026년 한빛원전 1·2호기가 폐로(閉爐)되면 이 부지에 안전체험·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원자력 해체 전문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포스트 원전산업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신혁신도시로 지정받겠다는 전략이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기

본계획을 내놨다. 기본계획은 폐로 부지를 안전체험시설과 원전 기술자의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빛원전에 신규 인력과 기술자의 교육 시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폐로 이후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되는 핵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핵폐기물 관련 세금을 추

기하면 한해 385억원의 세입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폐로 이후 발전 전략으로는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원자력 해체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e-모빌리티 특구 조성 활성화, 웰니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 원전산업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신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한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주민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1986년과 1987년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1호기와 2호기는 오는 2025년·2026년 각각 수명이 만료된다. 영광지역 총생산 중 한빛원전의 비중은 65%, 군 세입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원전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하고 폐로 절차에 들어갔다. 영광군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지역민들이 원전 폐로에 관심이 높다"며 "아직 수명이 남아있어 폐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kwangju.co.kr



농업단체 대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못자리용 상토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함평군, 못자리용 상토 6개 제품 확정

함평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못자리용 상토 공급업체 선정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상토 제품·가격 등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위는 농업단체 대표와 농협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함평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에서 수분함량·입자·물빠짐 등을 평가해 품질 좋은 상토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 사업은 기존 못자리용 황토 대신 상토를 공급하는 것으로, 황토가 너무 무거워 고령의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커 상토로 대체하는 것이다. 물론 상토는 황토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가볍고 설치가 용이해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올해는 총 면적 6500ha에 사업비 7억 3125만원(군비 70%, 농협 20%, 자담 10%) 투입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선정위는 올해 일반상토와 친환경상토

각각 3개씩 6개 제품을 확정, 4개 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됐다. 그동안 상토 공급업체를 1~2곳만 선정하더니 탈락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와 지난해부터 6곳으로 확대했다. 전남지역 내 생산업체는 총점에서 10점을 가졌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가점 혜택을 준 것이다. 선정위는 상토 가격을 1포당(40 l) 100원 인상했다. 또 대농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들에게는 포대가 아닌 톤백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업단체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위를 구성해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물빠짐 등을 실험한 뒤 공급업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영광군 27곳 최종 선정

영광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씨앗 18개소, 새싹 7개소, 열매 2개소 등 총 27개소의 마을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공동 관심사를 이웃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이웃간 관계망을 넓히는 사업이다. 사업계획부터 실행·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남 사군에서 351개의 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영광군에서는 이장회의 및 현수막 등을 통한 사업 홍보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영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지도 등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지도 등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지난해 10곳보다 3배 가까운 성과를 냈다. 선정된 공동체는 ▲씨앗단계 영광읍 실버꽃길 행복마을·염산면 합산마을공동체 등 18개소 ▲새싹단계 영광읍 향교마을회·묘량면 멋진인생 당산마을 공동체 등 7개

소 ▲열매단계 군남면 용암경로당·법성면 산하치마을로 총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환경개선, 마을안전, 공동육아, 마을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치적 의

사결정을 통해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성과 공유회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군, 보건·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없앤다

정기 방문체계 활성화로 어르신·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읍·면사무소 방문 간호사 배치 밀착·사후 관리 체계 구축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이 현장 중심의 방문체계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신안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문체계를 강화하고, 지원과 보살핌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안군은 섬으로 구성된 지역특성과 34%에 이르는 노인인구, 건강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여건을 안고 있어 방문

을 통한 보건·복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문건강관리 인력만 근무하면서 방문건강관리 업무가 활성화되기 힘든 실정이며, 복지와 보건의 이원화는 서비스 접근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안군의 복지업무는 읍·면사무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이원화돼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강취약 계층은 대부분 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와 외부자원의 연계는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 시스템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감안 현장 중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는 읍·면사무소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해 대인 밀착형 서비스와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는 보건·복지에서 멈추지 않고 전기, 수도, 배수관, 정수, 주변환경 등 작은 손이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문관리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방문간호사를 대폭 증원해 방문관리 시스템을 정리하고 지원 결과를 자료화하는 등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방문간호사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약자나 취약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19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6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과 건강프로그램,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함평을 신청사로 이전한 함평교육지원청이 지난 5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행사를 열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함평교육청 제공>

함평교육청 신청사 이전... '인재천지' 실현 다짐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함평읍에 신축한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전 후 첫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행사를 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이날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떡 케이크를 자르며 '함평교육 다시 100년'을 여는 첫 시작을 자축했다. 1952년 교육자치제 시작으로 발족된 함평교육청은 함평리(149번지), 기각리(775-1번지·1964년), 기각리(892번지·

1971년)를 거쳐 현재 위치로 이설했다. 신청사는 지난해 1월 착공해 1년여 공사 끝에 건축면적 1468㎡, 연면적 293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Wee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영재교육원·외국어체험센터 등을 갖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3000여 함평인재양성의 산실로 거듭났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변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1233-2, 전용면적 : 137.16㎡(41.5평) 대지권 : 42.23㎡(12.8평) 현 고기전문점 식당 공실상태 **감정가 11억, 최저가 (56%) 6억1천6백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1층 제조업소, 2층 단독주택사무소 **감정가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45%) 2억7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동구 계림동 토지 : 195㎡(59평) 건물 : 516.91㎡(156.4평) 지하1층 지상3층, 재개발 투자적합 **감정가 6억4백만원, 최저가 (70%) 4억2천3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85㎡(86.2평) 건물 : 871.4㎡(263.6평) 지하1층 지상4층 **감정가 8억1천8백만원, 최저가 (70%) 5억7천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풍향동 39-7번지 토지 : 496㎡(150평) 건물 : 54.04㎡(16.3평) **감정가 2억1천4백만원**
- 주 택** 광주 남구 서동 97-4번지 토지 : 193㎡(58.4평) 건물 : 140.39㎡(42.5평) **감정가 2억 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